주가	환율	금리
-14.97	-2.10	-0.02
1,289.54 (코스피지수)	962.60원 (원/달러)	4.79%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44.84	(-4.91)
다우(4일)	11,240.35	(-2.24)
나스닥(4일)	2,085.05	(-7.29)
닛케이	15,154.06	(-345.1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58엔	(+0.40)
유로 달러 환율	1.2877달러	(+0.69)
3년만기 회사채	5.11%	(-0.02)
콜금리	4.30%	(+0.01)

기아차 파업 언제 끝나나…

광주공장 부분파업…영업이익 9개월만에 적자

지역민·협력업체, 광주경제 타격 우려 목소리

기아차 상반기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7일 휴가에서 복귀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공장의 경우 환율 하락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 속에서 이같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3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기아차에 따르면 환율하락과 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에 1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기아차가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에 21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9개월만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차에 피인수된 후로는 두번째다.

또 기아차의 2분기 매출액은 4조4천6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 감소한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451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6%나 급감했다. 이로써 기아차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8조8천4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1%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영업이익은 171억원으로 58.3%나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835억원으로 75.5%나 감소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5.1%나 하락했고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3.4%에서 올 상반기 14.1%로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광주공장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3분기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광주공장 노조는 지난달 18일 출정식을 겸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7일 현재까지 총 2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재 노조는 ▲월 임금 10만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 및 성과급 300% 지급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조합선임자 이사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8일, 9일 총 12시간의 파업을 벌인 뒤 오는 10일 사측과의 14차 교섭에서도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향후 파업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파업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광주공장과 협력업체는 물론 광주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아차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51)씨는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직원들이 월급 10만원을 인상하려고 파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시민들과 협력업체가 기아차살리기와 기아차사주기 등의 애정을 보인데 대해 파업으로 보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부동산 거래금액 축소 신고

실거래가 위반자 세무조사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올해 1월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해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올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됐으며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494명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명은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51명외 443명은 소명을 통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풀릴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연합뉴스

코오롱건설, 아파트 브랜드 새단장

코오롱건설(대표 민경조)이 아파트 브랜드인 '하늘채'의 로고 디자인을 바꾸고 오리엔탈 프리미엄 아파트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하늘채의 새로운 컨셉인 오리엔탈 프리미엄은 동양의 우수한 가치와 감성을 서양의 첨단기술과 조화시켜 구현한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를 의미한다.

홍콩의 유명 디자이너 알란찬의 작품인 신규 로고는 동양의 대표적 상징물인 대나무를 모티브로 현대적 건축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이달말 분양예정인 광주 수완지구 코오롱 하늘채(753세대)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로 이름 바뀐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명칭이 '유·스퀘어'(U·square)로 변경된다.

7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오는 1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스퀘어' 개관식을 갖고 공식명칭을 변경한다.

'유·스퀘어'는 편리한 시설, 쾌적한 환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새 이름으로 '당신의 광장(You), 젊음의 광장(Youth)'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스퀘어' 개관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냉·난방시설 전면 교체, 대합실내 화단 조성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또 야외무대가 설치된 '유·스퀘어' 광장은 문화예술인과 학생 동아리 등의 전시 및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된다.

박삼구 회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이익을 가장 염두에 뒀다"며 " 이 공간을 관광과 문화의 허브로 만들어 지역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수·입·차

최고 VS 최저

카레라GT 8억8,440만원

몬데오 2.0 2,660만원

카레라 GT 1대로 몬데오 2.0 33대 산다

외제차 수입이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대부분 메이커의 거의 모든 차종이 모여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제차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7일 현재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수입차 업체는 13개사이며, 이들이 국내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모델만도 240여개에 달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수입차 업체의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 배기량 등의 '최고' 및 '최다', '최저' 및 '최소'를 알아본다.

◇**가격**= 가장 비싼 차는 포르셰의 카레라GT로 가격이 무려 8억8천440만원에 달한다. 카레라GT는 1천200여대만이 한정 생산돼 현재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가장 싼 차는 포드의 몬데오 2.0이다. 결국 포르셰 카레라GT의 1대로 몬데오2.0 33대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배기량**= 배기량이 가장 큰 차는 롤스로이스의 팬텀이다. 팬텀은 6천749cc의 엔진을 탑재, 453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 현재 '공식 판매' 모델은 아니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기량 7천986cc의 엔진을 장착한 클라이슬러의 닷지 바이퍼GTS가 판매됐었다. 또한 배기량이 가장 적은 차는 푸조의 하드탑 컨버터블인 206CC 1.6과 왜곤형인 206SW 1.6으로, 두 모델의 배기량은 1천587CC이다.

◇**길이·폭·높이**= 길이가 가장 긴 차는 마이바흐 62다. 길이가 6.2m(6천165㎜)이기 때문에 모델명도 '62'가 된 것이다. 반대로 길이가 가장 짧은 차는 차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미니 쿠퍼다.

'최고'의 폭과 높이를 자랑하는 차는 재규어 XJ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다. 재규어 XJ의 폭은 2m가 넘는 2천108㎜이고, 에스컬레이드의 높이는 1천945㎜로 왠만한 성인 남성의 키에서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폭이 가장 좁은 차는 푸조의 206SW로 그 전폭은 1천664㎜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차는 포르셰의 박스터로 높이가 1천295㎜에 그친다.

◇**무게·트렁크**= 가장 무거운 차는 길이가 가장 긴 차답게 마이바흐 62가 꼽혔다. 마이바흐 62의 무게(공차중량)는 2천780㎏으로, 일반 승용차의 2배 가량의 무게였다. 볼보의 XC90 V8 AWD는 2천7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가벼운 차는 미니 쿠퍼로 1천150㎏에 불과했다.

◇**모델수**= 국내에 가장 많은 모델이 소개된 차량은 BMW이다. BMW의 경우에는 3시리즈 5종, 5시리즈 5종, 6시리즈 2종, 7시리즈 6종 등 총 26개 모델이 국내 시장에 나와있다. 하지만 혼다의 경우에는 어코드 2.4와 3.0 2개 모델과 레전드, CR-V 등 4개 모델만을 갖고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바흐 62 길이 6.2m

미니 쿠퍼 3.6m

제조업체 10개사중 7곳 이상 금리 오르면 투자 연기·취소

대한상의 656개업체 설문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인상되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6곳 정도는 현재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자, 조선, 자동차 등 8개 업종의 6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31.9%는 콜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상되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콜금리가 1.0%포인트 올라가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42.8%에 달해 조사 기업의 74.7%는 콜금리가 현재보다 0.5%이상 인상되면 투자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의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는 경기하락 가능성(44.2%)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환율·유가 등 대외요인 불안(26.8%), 투자자금 부족(9.8%), 고익투자처 감소(6.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59.9%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기침체의 가장 큰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회복 불투명(34.5%)을 꼽았다.

이와 함께 67.4%의 기업이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요인이 8% 정도 발생했지만 제품가격에 실제 반영한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즉시 제품가격에 반영한다는 기업은 12.5%에 불과했지만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39.5%에 달했고 반영시기가 3개월내는 19.4%, 6개월내는 14.8%, 1년내는 13.8%였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조사 결과, 환율하락이 대기업(38.0%)과 수출기업(53.9%)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정부가 하반기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과제로 경기활성화(77.7%)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부동산·물가 안정(10.3%), 경제시스템 선진화(5.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요일은 '줄담배의 날'?

요일별 판매 최고… 업무 스트레스 최고조 탓

1주일중 금요일에 판매되는 담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담배를 핀다고 가정하면 주말과 일요일을 앞둔 금요일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KT&G는 지난 6월5일에서 7월30일까지 8주동안 GS25·훼미리마트·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등 전국 9천404곳의 대형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모두 1억3천256만갑의 담배가 팔렸다고 7일 밝혔다.

요일별 담배 판매량을 살펴보면 금요일이 1천956만갑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에 가장 적은 1천793만갑이 판매됐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각각 1천919만갑의 담배가 팔렸고 목요일 1천910만갑, 토요일 1천894만갑, 월요일 1천866만갑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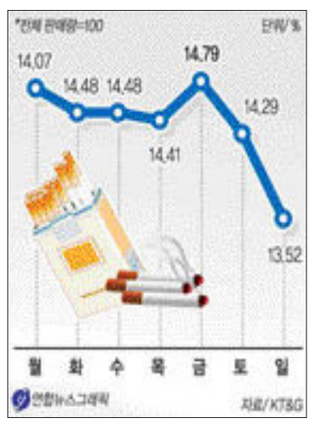
전체 판매량을 100으로 놓고 보면 월요일 판매량이 14.07이었고 화요일과 수요일엔 각각 14.48로 늘다가 금요일에 14.76으로 정점을 찍은 뒤 토요일 14.29, 일요일 13.52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금요일에는 일평균 판매량보다 3.26% 더 많은 담배가 팔렸고 화요일과 수요일도 각각 1.30%씩 판매가 늘었다.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엔 판매량이 일평균보다 각각 0.04%, 5.36% 적었다.

즉 흡연자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주로 있는 주말과 휴일에는 흡연량을 줄이다가 월요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늘려 금요일에 가장 많은 담배를 피는 셈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요일별 담배 판매비중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G전자서비스㈜호남센터	Digital 가전제품 수리과정 교육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8	062-510-6190
INBET(인베트)	웹프로그래머/네트웍관리 인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10	062-367-9063
㈜컴팩아시아	전기자동화 설비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8/10	070-7018-0077
한양종합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8/10	062-369-0790
일국엔지니어링	도로설계, 건축, 설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1	062-372-4066
퀸스빌건설㈜	총무부 경력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8/11	062-572-5500
㈜한빛스텝스	2006년 대한화재 1기 광주 T/M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1	062-376-1118
행복디엔씨	사무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12	062-654-0401
호텔 프라도	연회사업부/프론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3	062-654-2301
㈜현보하이텍	품질관리/자재관리업무 담당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3-532-3607
㈜진우전력	전기공사 현장시공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15	062-364-955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